



Clasp RPD를 이용한 소수 잔존치 수복

최부경*, 최정한, 권호범, 이동환, 정운호, 이석형, 임순호 |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치과보철과

구강 내 다수 치아가 발치되어 부분 무치약이 된 경우 전통적인 clasp RPD, attachment, telescopic denture, implant 등을 이용하여 수복을 하게 된다.

Clasp RPD는 다른보철물에 비해 설계 및 제작 방법이 간단하고 경제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. 그러나 Carsson 등은 RPD 사용으로 인해 삽입 철거시 지대치에 축방 압이 가해지고, 지대치에 우식증과 치주염이 유발되며 단독 고립체에 clasp 를 적용하기 어렵고, 유리단 치조제 결손 부위에 잔존 치조제의 흡수 등의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.

한편, Bergman 등 다수의 저자는 적절히 설계된 RPD제작과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수 치아 잔존 시 RPD사용으로도 장기간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.

본 증례의 환자는 72세 여자 환자로 상, 하악에 다수 치아 결손과 잔존 치아의 심한 우식으로 저작을 할 수 없고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초진 시 상, 하악 전치부만 일부

잔존한 상태이며, 오래 기간 잘 맞지 않는 틀니의 사용으로 잔존 치아가 정출되어 교합 평면이 적절하지 못하였다.

수직적 수평적 악간 관계에 대한 검사 후 진단 wax-up 실시 후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고, 보철 전 처치를 시행, 잔존 치아의 충치 치료 및 신경치료 후 잔존 치아 모두 PFG surveyed crown을 장착하였다.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잔존 치아의 수가 적으며, 충치의 이환으로 지대치가 약해진 상태이나 워낙 잔존 치조제의 형태가 양호하여, altered cast impression을 통해 잔존 치조제에서 충분한 지지를 제공하면 conventional RPD로도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.

이에 본 증례는 상악과 하악 모두, 잔존 치아를 고정성 보철물로 구강 형성한 수 부분 결손 부위의 altered cast impression 을 통해 조직 지지를 충분히 얻으면서 RPI clasp를 통해 심미적, 기능적으로 양호한 임상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 하는 바이다.